

2011. 4

www.worldview.or.kr

CHURCH & MISSION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샘물교회

PEOPLE & PEOPLE

적정기술 나눔운동 장수영 교수

WORLDVIEW COLUM

쉐퍼의 어깨를 빌리자

스쿠크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

공정과 상생

기독교적 고전교육

MOVIE REVIEW

대니 보일 감독의 '127시간'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연회의 시작 - **엘타워**

호텔 가격의 거품은 걸러내고 품격만을 남겼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선택으로 더욱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엘타워에서 국내 최고의 연회를 경험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닛산,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 비즈니스의 무대로 **엘타워**를 선택했습니다.



닛산 / 그랜드홀



마이크로소프트 / 그랜드홀



2010 SFAA 서울 컬렉션 / 그랜드홀



인텔 / 매리골드홀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포츠펠디,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02-526-8600 ~ 4 | 양재역 7번출구 바로 앞 위치



APRIL 2011 VOL.130

발행인_손봉호

편집인_김승욱

편집_차명실

편집위원_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중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출판위원_유정철, 김승태, 김건주

제작_한국학술정보

주소_140-909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대표전화_02-754-8004

팩스_0303-0272-4967

E-mail_(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gihakyun@daum.net

Homepage_www.worldview.or.kr

Facebook_facebook.com/cworldview



표지사진_오병이어교회, 홍선호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 타브가의 오
병이어 교회 바닥 모자이크.
오병이어의 가적처럼 작은 헌신들이
모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들이 풍성해 자기를 기대합니다.

WORLDVIEW THEME

04 쉼퍼의 어깨를 빌리자_성인경

CHURCH & MISSION

10 세계관 목회 리포트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샘물교회

PEOPLE & PEOPLE

14 동역자 사역소개
적정기술 나눔운동 (사)나눔과 기술 이사_장수영

WORLDVIEW COLUM

20 스쿠크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_박종운

26 한정화 교수의 글에 대한 재반론:

공정과 상생_조성봉

30 기독교대학 단상_양승훈

36 차별화된 교육, 기독교적 고전교육_안정진

WORLDVIEW CULTUR

40 찬송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히 바치는 예배_김명엽

MOVIE REVIEW

42 대니 보일 감독의 '127시간(127 Hours) :

진정 살기위해 해야 할 일_강진구

BOOK REVIEW

46 진화론을 탐구하다:
생명의 진화에 대한 8가지 질문_이승엽

WORLDVIEW NEWS

48 활동보고와 회원소식

50 회비 및 후원안내



상단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www.worldview.or.kr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쉐퍼의 어깨를 빌리자

글 성인경 한국라브리공동체 대표

예수를 따른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유치해 보이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번은 제자들끼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다툰 일이 있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끼어들 정도였으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알았다면 간담이 서늘해서라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감히 말조차 고집어 낼 수 없었을 텐데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을 기대했으니 꿈꿀 수도 없었을 것이다.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 살자고 제안 했던 베드로의 경우도 웃음을 자아내기는 마찬가지다.

영적위기

프란시스 쉐퍼(Francis August Schaeffer IV, 1912-1984)는 사랑과 지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전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부인 이디스(Edith) 여사와 함께 라브리 공동체(L'Abri Fellowship)를 설립하고 수많은 구도자들을 만나 자신의 황금같은 시간을 다 내어준 사람이다. 그는 그들과 대화하며 깨달은 진리를 23권의 크고 작은 책에 담았는데, 그것들은 각종 이데올로기와 타락한 문화 속에서 고뇌하는 지성인들을 위해 남겨놓은 실천적인 기독교 세계관 안내서들이다.

그는 어릴 때에는 세상에 실망하고 진리를 찾아 방황했으나 나이가 들면서는 진리를 보다 조직적으로 탐구하고 정립하는데 젊음을 바쳤으며, 장년 때에는 그가 찾고 연구한 진리대로 살고 전하려고 자신의 가정과 삶 전체를 쏟아 부었다. 동시대 최고 신학자였던 팩커(James I. Packer)는 쉐퍼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한 사람의 작은 장로교 목사로서 그가 주목했던 것들 이상으로 깨달았고, 우리 모두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하게 고민했던,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위대한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고민하고 깨달았던 것이 단지 케케묵은 문제나 서양적인 해답에 불과한 것이라면 굳이 그의 어깨를 빌릴 필요가 없다. 비록 용어가 다르고 서양적 접근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의 고민과 깨달음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국제 사회가 씨름하고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었다면 그의 어깨를 빌려서라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쉐퍼가 고민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글에서는 그의 영적 위기 후에 지은 시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1951년, 그가 마흔 살을 바로 앞둔 겨울에 영적인 위기를 맞았다. 당시에는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1948년 설립) 등 새로운 국제기독교기구를 두고 연합운동과 분리주의 사이에서 본질을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신앙과 교리를 재고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그 때 쉐퍼는 아내 이디스 여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가 기독교인이 된 지 무려 20년, 목사가 된 지도 13년, 선교사로 일한지도 벌써 3년이 된 때였다. 그는 겨울 내내 알프스산 계곡을 걸으며 생각하기도 하고, 동물들의 먹이를 저장한 건초더미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알프스에 봄이 왔을 때, 그는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쉐퍼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그 때의 영적 위기가 없었더라면 라브리 사역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했다. 그 이후로 성경적 기독교가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며, 기독교인들의 마크(mark)는 십자가의 능력이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 실천하고 증명하려고 일생을 바쳤다. 그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는 자신에게도 유

그가 고민하고 깨달았던 것이 단지 케케묵은 문제나 서양적인 해답에 불과한 것이라면 굳이 그의 어깨를 빌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의 고민과 깨달음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국제 사회가 씨름하고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었다면 그의 어깨를 빌려서라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비슷한 영적 위기를 맞이하여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돕는데도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부인 이디스 여사는 당시를 회고하기를, “그 때 이후로 프랜(프란시스의 애칭)은 스스로 튼튼한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사람들의 정직한 질문에 정직 하게) 대답할 문제에 대한 신선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선한 준비’란 쉼퍼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방언이나 신유, 예언의 은사 등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철학적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쉼퍼는 그 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몇 편의 시를 썼다고 하는데, 다음에 소개하고자 하는 ‘주여, 미끄러운 곳에서 우리의 발을 붙드소서’라는 시는 그 중에 하나이다. 그는 이 짧은 시에서 세상은 알프스산의 빙판 길처럼 매우 미끄럽고 그 밑에는 천 길 낭떠러지가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서 고독할 때나 갈채를 보내며 모여들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고, 잘 미끄러지기로 소문난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 할 길은 오직 주님이 강한 손으로 두 발을 붙잡아주시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고백한다. 영어도 시어(詩語)도 잘 모르는 필자이지만 이 시를 옮겨 보았다.

주여, 미끄러운 곳에서 우리의 발을 붙드소서

Lord, keep our feet in the slippery place
When friends are gone away.
When we stand alone in the dark and cold,
And all men answer, ‘nay.’
Lord, keep our feet in the slippery place
When friends all crowd around.
When men as echoes with smiling face,
Give but an echo’s sound.

주여, 미끄러운 곳에서 우리의 발을 붙드소서.
친구들이 떠나 가버릴 때,
우리가 어둡고 추운 곳에 외로이 서 있거나,
모든 이들이 ‘아니야’라고 대답할 때,
주여, 미끄러운 곳에서 우리의 발을 붙드소서.
친구들이 모여들어 에워쌀 때,
사람들이 미소 띤 얼굴로 요란한 갈채를 보내지만,
그것이 텅 빈 메아리에 불과할 때.

쉐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개인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몹시 낙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기가 걸어온 길과 교계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도, 전통, 형식, 운동, 조직, 사람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영성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영적 출발점

그러면 쉐퍼의 인생에 대 전환점이 된 영성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쉐퍼는 영적 위기를 그치며 자신이 지금까지 담고 서 있던 영성의 ‘출발점(starting point)’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의 영성의 출발점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특정한 제도, 전통, 형식, 운동, 조직, 사람에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영성의) 기차에 타고 있었다. 내가 탔던 잘못된 영성의 기차는 1930년에 유행한 분리운동이었고, 나만이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영적 교만이었다.”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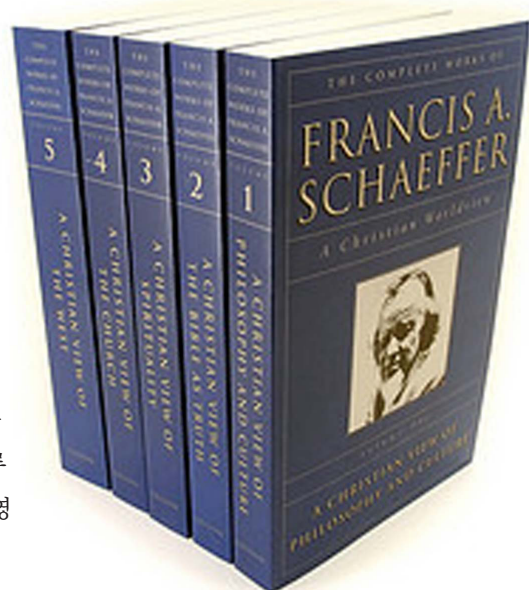
쉐퍼가 말한 ‘잘못된 영성의 기차’는 ‘분리운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세상 문화를 배격하는 근본주의적인 신앙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치적, 신학적, 감정적으로 자신이 범한 과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존경하던 신학자 그레샴 메첸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1936년에 미국 북장로 교회 총회에서 성직이 박탈당하는 것을 목도했으며, 메첸이 가르치던 웨스트민스트신학교에 들어갔으나 거기에서 교수들 간의 신학적 갈등을 보고는 맥킨타이어 교수를 따라 웨이스신학교로 학교를 옮기기도 했고, 졸업한 후에는 성경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에서 10년간 목회에 전념하기도 했다.

그 후 1937년에 교단 파송을 받아 제2차세계대전 후의 유럽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선교사로 일 하던 중에, 세계교회협의회(WCC) 출범 초기에 가담했던 지도자들 간에 감정적인 분열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랑의 결핍’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도 하였고, 정통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칼 바르트(Karl Barth)를 만나서 대 신학자의 면모를 보기도 하였지만 신학적 차이를 확인하고 실망하기도 했다.

그는 유럽에서 많은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개인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몹시 낙심했다. 이처럼 자기가 걸어온 길과 교계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쉐퍼는 제도, 전통, 형식, 운동, 조직, 사람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영성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둘째, 쉐퍼가 깨달은 진정한 영성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초자연성(supernaturality)’,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代贖的) 은혜를 ‘순간순간 믿는 것(moment by moment trust)’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적 사역을 실존적으로 매 순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영



“만약 라브리에 영적 실체가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이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령님이 더 이상 라브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

성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가지고 과일을 맺을 수 있다(요한복음 15:4)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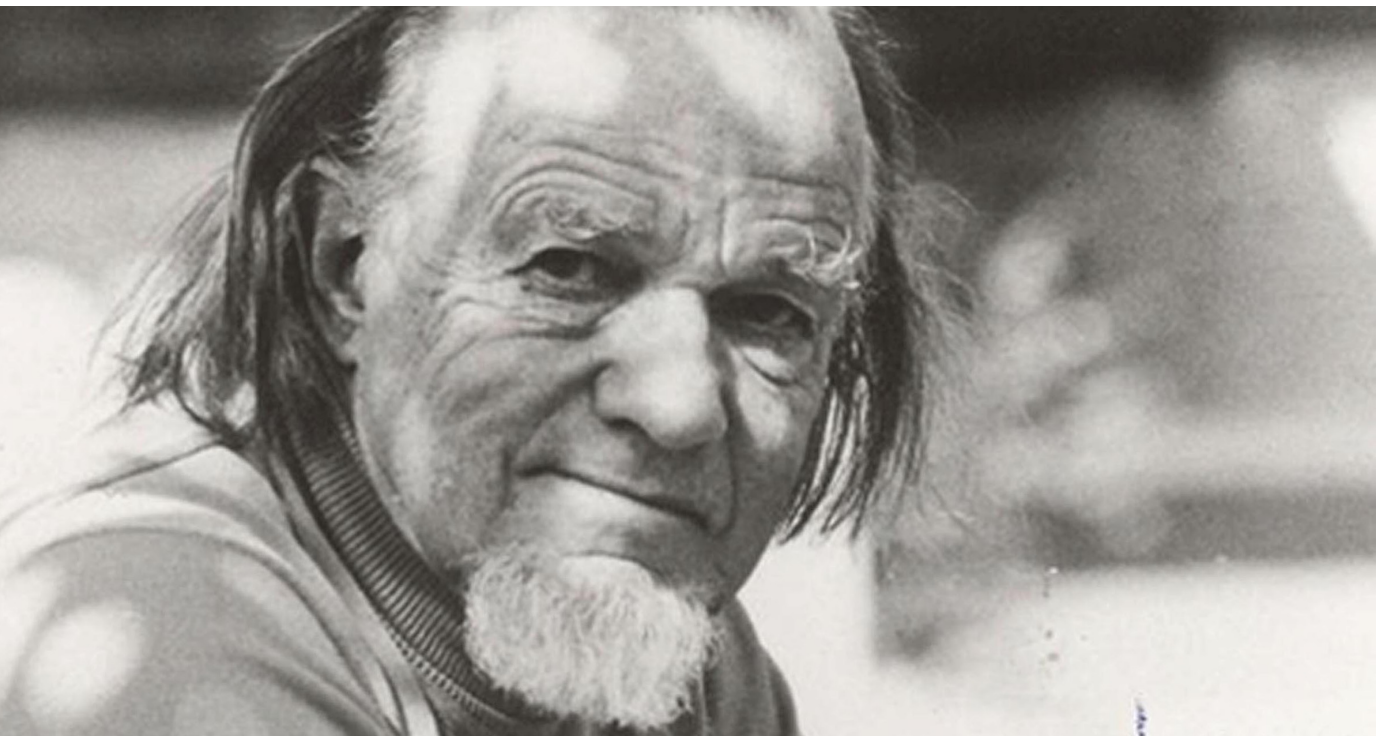
콜린 두루에즈(Colin Duriez)는 이때에 쉐퍼가 깨달은 영성을 ‘실존적 유형의 복음주의’라고 규정하며, 쉐퍼가 그것을 부부관계의 예를 들어 자기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자랑삼아 전하고 있다. “순간순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매일 밤 다른 여자와 함께 자러 가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이다.”

쉐퍼가 이때 깨달은 초자연적이고 실존적인 영적 삶의 중요성은 그가 나중에 라브리 공동체(L'Abri Fellowship)의 운영 원칙을 세우는데도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 “만약 라브리에 영적 실체가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이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령님이 더 이상 라브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

이 때 쉐퍼가 깨달은 영성의 범위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른 영성이라고 보았다. “나는 바른 영성의 강조점을 삶의 전 영역, 즉 예술, 문학에서부터 법과 정부의 영역까지를 예수님의 주재권(Lordship)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한 마디로 그는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공부하든지 데이트하든지 컴퓨터 앞에 앉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죄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도 치료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



셨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기도 하였고,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잔칫집 손님들이 마시고 즐기도록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다(마태복음 4:23; 누가복음 24:28-32; 요한복음 2:1-12). 부활하신 후에는 나무를 모아 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 드시기도 하셨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물질계와 정신계를 분리하거나 세속적인 삶과 거룩한 삶을 분리하시거나 삶의 어떤 영역도 그의 다스림과 회복 사역에서 제외하신 흔적이 없다.



이런 영적 위기 후에, 쉐퍼 가족은 1953년부터 1954년에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냈는데 그 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영적각성을 위한 부흥집회를 많이 인도했다. 쉐퍼 여사가 기록한 노트에 의하면, 515일 동안에 무려 346 차례나 집회를 인도했다고 한다. 당시에 그의 메시지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주류였다고 한다.

안식년이 끝나갈 무렵, 그의 사역과 노고를 인정한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하이랜드대학 (Highland College)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했으며, 그 후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 제2기 선교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위스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아들 프랭키가 소아마비에 걸린 것을 알았다. 새로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중보기도요청

지난 3월,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승태 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장녀 김선영 양이 재생불량성빈혈로 갑작스럽게 발병하여 일산 암센터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동생 김영준 군의 골수를 이식받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을 위한 치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자녀의 빠른 회복과 완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 목회 리포트 | 샘물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샘물교회

글 편집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장 13,14절)"

샘물교회는 1998년 서울영동교회에서 분립하여 분당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인도하심을 받고 시작되었다. 교회의 기초인 가정을 회복하고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샘물교회를 소개한다.

가정교회의 꿈

샘물교회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에 교회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2007년 가정교회로 전환하였다.

가정교회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 예배와 교제, 사도의 가르침과 나눔, 전도 등에 힘썼던 사역 형태를 모델로 하였으며 작은 교회인 목장이 모여 큰 교회를 이루는 구조를 가진 교회 체제를 말한다. 가정교회의 기초 단위로써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MP)을 소그룹인 목장에서 섬기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향해 나오도록 돕는 일과 목장 내에서 구성원들 상호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작은 교회로 대략 4~5가정으로 구성된다. 현재 가정교회 목장사역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활발하게 경험하며 영혼구원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다.



작은목자 훈련

목자는 목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리더로서 다음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임명한다.

생명의 삶 기독교의 기초 교리와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수료한 이후 성경적인 가치관 형성, 큐티의 기본을 배우는 과정.

경건의 삶 새로운 삶을 수료한 이후 성경말씀을 실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경건에 이르는 삶을 훈련하는 과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경건의 삶을 수료한 이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과정.

이밖에도 부모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전도폭발), 커피브레이크(성경공부) 등이 있으며 성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2박 3일간의 샘 훈련, 신구약별 연구를 중심으로 한 성경 강좌로 성경의 깊은 이해를 돕는 신학강좌와 목자들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리더십 훈련, 행복한 부모학교를 통한 부모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기독교학교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언약의 자녀를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섬기는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학문과 문화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샘물기독교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교육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분당 정자동 샘물교회 안에, 중고등학교는 운중동 판교샘물교회에 있으며 25개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샘물기독교학교에서는 신앙이 다음세대로 전수되고, 우리의 자녀를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분립개척교회의 꿈

샘물교회는 만 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 보다는 천 명 모이는 열 개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을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분립 개척운동’을 이루어가고 있다. 샘물교회는 서울영동교회의 네 번째 분립개척으로 탄생한 교회로서 개척 때부터 교회분립 개척운동을 실천, 2002년도 교회설립 3년차에 동백에 샘빛교회를, 2010년 9월 샘물중/고등학교 이전과 함께 서판교 운중동에 2차 분립 교회인 판교샘물교회를 세웠다.

순교의 별

샘물교회는 선교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교회이다. 하나님께서는 2002년 중국에서 사역하던 안대욱 선교사와 2007년 아프간에서 배형규 목사, 심성민 형제 이들 세 분의 순교자를 샘물교회에 주셨다. 샘물교회는 순교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아프간의 순교를 넘어 세계 각처에서 복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매년 단기봉사팀을 파송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현재 해외 18개국 6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특히 2007년 7월의 아프간 순교 사건은 우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의 상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샘물교회는 순교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서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차세대준비지역

라이즈업비전즈: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어라'라고 외치는 라이즈업비전즈는 1999년 성남 분당 지역에서 비전즈를 모체로 시작된 10대 청소년 연합운동이다. 이밖에도 샘물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으며 '문미엔'이라는 지역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종사 크리스찬 연합운동을 통하여 문화사역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샘물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있다.

말아톤복지재단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 중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전문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주간보호센터, 그룹홈, '올'(커피&티)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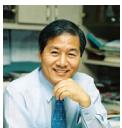
사랑마루 성남 모란역, 태평역 일대의 일용직 근로자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과 다문화가정돕기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샘물봉사단 교인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영역 및 활동을 국가주도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봉사의 욕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섬김사역을 하고자 세워졌다.

은빛샘 가까운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와 교육, 친교와 봉사, 선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사랑부/에바다부 장애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통역, 예배시작 전 수화배우기, 수화교실 운영 등으로 장애인들과의 예배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역이다.

샘물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더욱 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한다.



박은조 목사

고려 신학 대학(B.A)과 고려 신학 대학원(M. Div), 영국 London School of Theology(M.A), 영국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 (Dip. Miss.) 그리고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 Min.)에서 훈련받았다. 가족으로는 어머니(김점순)와 아내(양미희) 그리고 세 자녀(주현, 미현, 대은)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 동역자 사역소개 | 적정기술 나눔운동 (사)나눔과 기술 이사

장수영 교수

“적정기술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인기 있거나 잘 팔리는 기술보다 잘 팔리지는 않는 기술일지라도 구매력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술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소개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현재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는 원래 가정대 의생활학을 졸업했지만 나중에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가족사랑센터'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청소년과 부부,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가족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결혼한 딸과 사위는 치과 의사들이고 금년 1월에 결혼한 아들은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며느리는 연극을 공부합니다.

동역회와는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세계관운동을 일찍 시작하신 송인규 목사님을 유학시절에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기독교 학문과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기학연은 기학연 소식지가 일반 복사지를 묶은 모습이었을 때부터 알고 지냈지요. 동역회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결성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늦게 기독교를 믿고, 송인규 목사님을 통해 기독교를 알게 되었기에 제겐 세계관 운동이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세계관 운동인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세계관에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제겐 적응하기 힘든 일이었답니다. 물론, 입만 열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달고 다니던 제가 그분들에게 더욱 힘들었으리라는 것은 나중에야 깨달았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함께 한 세월이 이제 25년쯤 되었네요.

사단법인 나눔과 기술의 공동대표로 계시는데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먼저 크리스찬과학기술포럼이 창립되었지요. 대전을 중심으로 무조건 모여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는 과학기술자들의 모임이 2005년 10월에 생겼습니다. 한두 해 주께서 인도하시는대로 이런저런 모임을 하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지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과학기술은 오직 구매력 있는 사람만을 향합니다. 늘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있는 고통 받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에 과학기술이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은 회복된 과학기술일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이 일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동참하게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나눔과 기술'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굿네이버스와 같은 NGO들과 특허청 등의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한 기술이라 불리는 적정기술에 대해 자세한 소개와 대표적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과학기술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저 좋은 것,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과학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것이 있다면 가져간 것도 있겠지요?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 반성은 늘 있어왔습니다. 물론 늘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겠지만요. 과학기술에 대해 반성하다 보면, 결국 좋은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가는데요. 좋은 기술이 무엇이나에 따라 적정기술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인기 있는 혹은 대박 나는 기술, 잘 팔리는 기술이라기보다 잘 팔리지는 않는 기술이라도 구매력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기술이 좋은 기술이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적정기술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시켜 주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먹을거리, 위생 문제



▲ 홍성욱 교수가 19일 대전 한밭대 실험실에서 옥수수대로 만든 숯을 살펴보고 있다. 이 숯은 연료가 부족한 아프리카 차드 주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다(출처: 국민일보).

◀ 휴대용 개인 정수기 '라이프 스트로(Life Straw)'를 이용해 물을 마시는 아프리카 여성. 스위스 사회적 기업 베스티가르드 프란센이 개발해 가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에 공급했다. 이 정수기 필터는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99% 이상 걸러내 수인성 질병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출처: 에잇더 월드)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들을 위한 기술들이 적정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은 주류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 제법 다양한 결과물을 산출하였습니다.

지구상에 물 문제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하루에 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사례로는 점토 항아리를 이용하여 물을 정수하는 것이라든가, 몇 키로 씩이나 걸어가서 물을 날라야 하는데 이러한 힘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70kg의 물을 굴리면 갈 수 있도록 한 Q드럼이라는 것도 개발 되었고, 고장이 나도 타지인의 도움이나 물건이 전해지지 않아도 현지인들의 손으로 직접 고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하수 펌프도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 태양전지와 LED를 이용하여 밤에 빛을 주는 거라든가, 태양열을 이용한 조리기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눔과기술이 굿네이버스와 협동하고 특허청에서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서는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 망고를 건조하는 공정과 사탕수수로부터 음식물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숯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직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차드 현지에 개발되는 지역 공동체에 수익 사업과 에너지 문제를 돕는 기술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다보면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서도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이제 시작이라 나눌만한 큰 성과들은 많지 않습니다. 차차 좋은 성공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모두가 가장 많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중고등학생, 기독교생들,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니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 있는 과학자, 기술자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저희는 이 일을 시작하지만, 진정 큰 일은 지금 자라나는 젊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 축열기 덕분에 따뜻한 밤을 보내게 됐다는 초호오라 할머니 (사진: 굿네이버스)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몽골의 추위를 이동식 천막 '게르'에 의지하여 이겨내야 하는 시민들은 유연탄 난로의 연기때문에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호흡기와 심장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축열난방기 'G-saver'는 열효율이 높고 매연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 ▶ 우상단: 캄보디아 선교지에 설치해준 태양광 발전기
- ▶ 우중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피터스버그 인근의 시골마을에서 한 소년이 500 짜리 '큐 드럼'을 비교적 쉽게 끌고다녀 웃고 있다. 큐 드럼은 저개발국·저소득층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적정기술이다. 에디터월드 제공
- ▶ 우하단: 아프리카의 망고 건조기

나눔과기술에 함께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대부분 대전 지역 대학교에 계신 학자들과 연구소 연구원들입니다. 한동대, 한남대 등의 기독교 대학을 그리고 예향 기독교, 수원 중앙기독교중학교 등의 기독교 학교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역에 힘을 합하고 있으며, GFPI, 기독교통일학회, 성서한국, 파사연(PAJA)을 위해 사랑 안에서 연합한 모임 등의 기독교 단체와 협동하고 있습니다. 팀엔팀, 굿네이버스 등의 NGO와 특허청과 교과부 등의 정부 기관과도 협력합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조찬기도모임도 있는데 법인체를 이끌어가는 특별한 원동력이 있으신지요?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모여 식사하고, 9시 경까지 독서 토론, 현안 토의, 기도, 찬양 등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 7시에 모여 기도와 현안 토의를 한 후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 이 두 모임에서 저희 단체의 추진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이공계를 기파하는 현 상황에서 다음세대에게 줄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주 앞에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악한 영향력 아래 늘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진정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지 모릅니다. 그토록 불가능한 일하기에 아무리 작은 성공도 주님의 은혜이고 영광의 드러남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토록 승산이 없는 싸움으로



“ 과학은 찬양이고 공학은 섬김입니다. 주께 하듯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일은 찬양입니다. 그 배우고 익힌 것으로 주께 하듯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모든 일은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주님 오시기까지 큰 승리가 없더라도 선한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갈망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갈증과 배고픔은 주님의 날에 비로소 드러나는 주의 정의와 위로 안에서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요체라 생각합니다.

저희 포럼에서 늘 외치는 모토가 있습니다. “과학은 찬양이고 공학은 섬김이다.” 그렇습니다. 주께 하듯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일은 찬양입니다. 그 배우고 익힌 것으로 주께 하듯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모든 일은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를 섬기는 일은 서비스(Service) 곧, 예배라 생각합니다.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땀 흘려 배우고 익히자고 하고 싶습니다. 절대반공에 있는 이들에게 마실 물과 먹거리를 주는 일, 신재생 에너지로 그들의 삶에 빛과 온기를 가져가는 일, 주께서 주신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보존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일에 모든 기독교 과학기술인들이 앞장서게 되길 바랍니다.

2011년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청년기독학술발표논문상 모집공고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는 학생들의 우수한 논문을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청년기독학술논문상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대학원생들의 응모를 바랍니다.

논문모집 분야: 기독교세계관, 교육, 문학, 철학, 경제, 경영, 자연과학, 문화예술, 상담심리

신청접수: 2011년 4월 23일까지

신청내용: 발표자 성명, 소속, 직책, 전공, 논문제목, 연락처

발표논문 원고제출: ecoihk@mju.ac.kr(김태황 총무), gihakyun@daum.net(김승남 사무국장)

문의: 3272-4967, 754-8004 * 발표논문은 <신앙과 학문> 투고시 우대함

대상논문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논문

- 1) 201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신청된 논문
- 2) 저자(공저자 포함)가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
- 3) 2011년 5월 9일까지 제출된 논문

심사절차

- 1) 기독교학문연구회 청년기독학술논문발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2) 위 논문들을 대상으로 두 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
- 3) 선정된 논문은 학술대회에서 반드시 발표할 것
- 4) 선정된 논문은 학술발표회에서 학회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 수여

심사기준

기독교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 연구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의 완성도(논리성) / 학문 발전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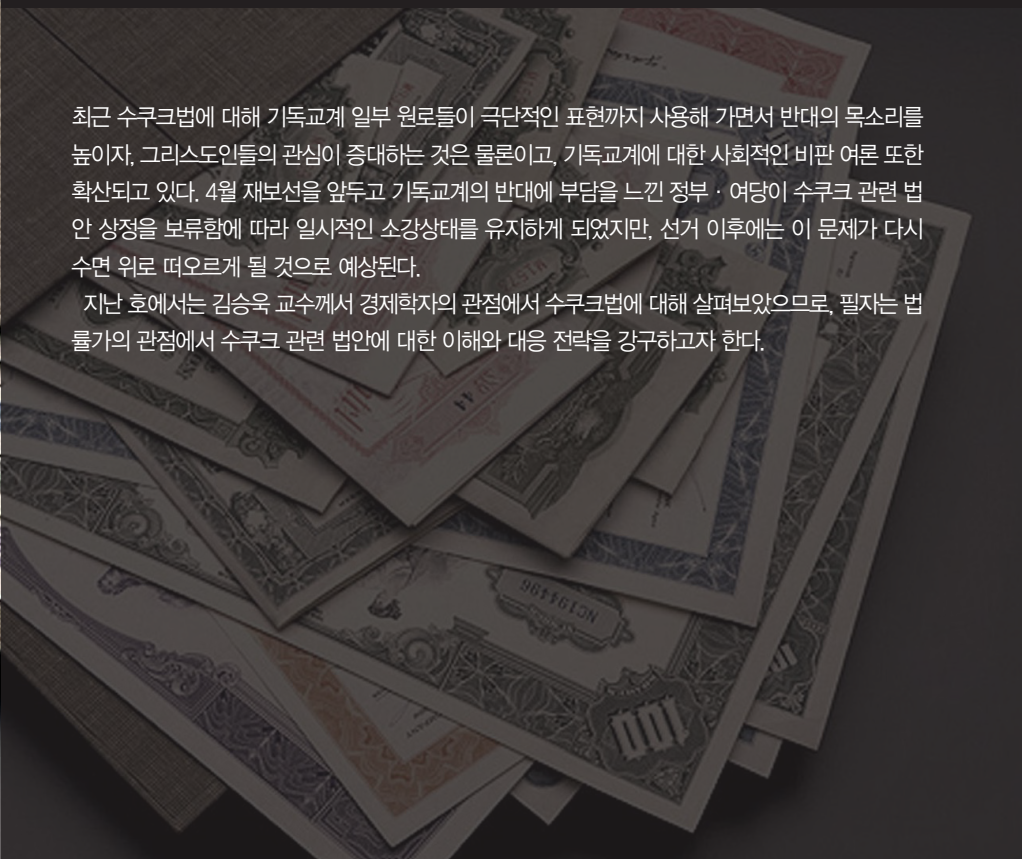
수쿠크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

글 박중운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CLF(기독교법률가회) 사무국장



최근 수쿠크법에 대해 기독교계 일부 원로들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증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독교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기독교계의 반대에 부담을 느낀 정부·여당이 수쿠크 관련 법안 상정을 보류함에 따라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선거 이후에는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호에서는 김승욱 교수께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수쿠크법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필자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수쿠크 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수쿠크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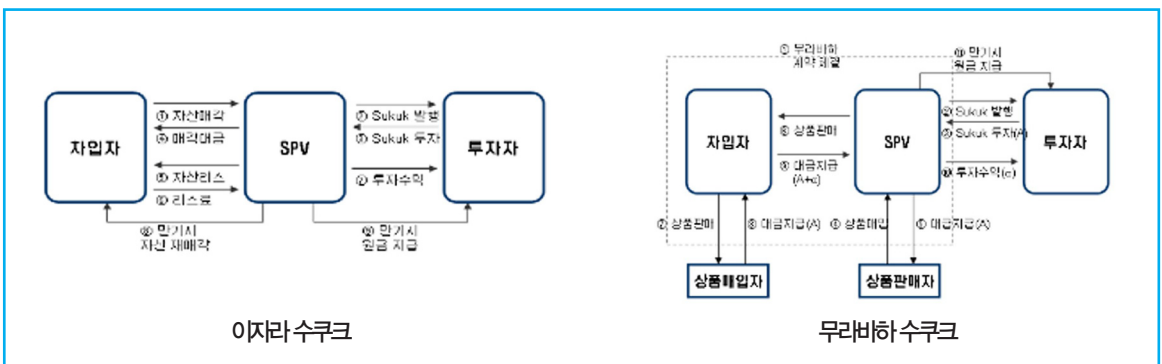
통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이자(아랍어로 '리바')받는 것을 불공정하고 착취적이며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만일 무슬림 투자자들이 샤리아법을 준수하려 한다면 돈을 빌려주고도 수익(이자)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원래적인 의미의 금전채권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 때문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샤리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게 되었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돈으로 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을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독특한 구조의 이슬람적인 금융기법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채권을 '수쿠크(Sukuk 이슬람채권)'라 하는데, "샤리아 원칙에 따라 기업이나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총칭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샤리아'의 가르침에 근거한 금융을 다른 금융과 구별하여 '이슬람 금융'이라 하는데, 이슬람 금융의 역사는 30년 안팎으로 그다지 길지 않다. 따라서 이슬람 세계의 채권발행방식에는 돈을 빌려준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일반 채권방식(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 수쿠크 방식이 있다.

수쿠크 방식도 매우 다양한데, 유형자산을 구입하여 빌려주는 이자라(Ijarah), 고객대신 상품을 구입하여 전매하는 무라바하(Murabahah), 고객 대신 제조를 발주하여 완성된 상품(건축물)을 고객에게 전매하는 이스티나(Istisna), 투자신탁(펀드)에 상당하는 무드하라바(Mudharabah), 공동출자에 상당하는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이자라 수쿠크와 무라바하 수쿠크인데, 그 대략적인 구조는 하단의 그림과 같다(국회 전문위원 자료에서 발췌, SPV : 해외특수목적법인).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듯이 무슬림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이슬람 세계의 모든 무슬림들이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이고 실제로는 옛 소설 속의 유대인 못지않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마찬가지로 은행도 이자(투자수익)를 받는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에 살고 있는 이상 샤리아법을 지키면서 돈을 벌고 싶은 무슬림들이 많을 것이고, 따라서 샤리아법을 지키면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보다 많은 무슬림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에 따르면, 이러한 이슬람 금융은 2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매년 10~15%씩 급성장하고 있다.

수쿠크법(안)의 내용

문제는 2009. 9. 28.경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제1조). 예컨대, 같은 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 제2호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소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면세혜택을 주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가 보다 쉽게 되기도 하지만 외화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세금을 붙이게 되면, 외국자본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세금으로 낼 금액만큼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결국 그 세금은 이자 및 수수를 부담하게 될 국내법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이자에 세금을 붙일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개정안 제안 이유는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발행한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과세특례를 신설하면 내국법인의 이슬람채권 발행 활성화로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1조의2(특정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제119조 및 제120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제21조의2는 ① 내국법인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이하 '발행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권리관계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외화 표시증권(이하 '특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하 '조달법인')이 제4호 가목에 따라 발행법인에 지급하는 임대료를 이자로 보고, 이를 지급받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발행법인이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자산 임대용역과 제1호에 따른 조달법인의 자산의 매도 및 제2호에 따른 발행법인의 자산의 매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권리관계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외화 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 제4호에 따라 발행법인에 지급하는 전매대금 중 발행법인의 매수가액을 초

과하는 금액(이하 '추가지급금')을 이자로 보고, 이를 지급받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제1호에 따른 발행법인의 자산의 매도 및 제3호에 따른 조달법인의 자산의 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법안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현 정부의 입장은, 이슬람 금융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형식적으로 보면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와 동일·유사하게 조세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무슬림 투자자들이 이자라 수쿠크, 무라바하 수쿠크 방식으로 얻는 투자수익은 이슬람 금융의 특성에 의한 것이므로 이자수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수쿠크법(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소견(所見)

이러한 수쿠크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슬람권에 풍부한 자금이 있고 자금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술, 담배 등을 금지하는 등 이슬람 금융은 매우 건전하다",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화조달 통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실물투자를 수반하는 특성상 장기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이슬람 금융은 매우 안정적이다", "중동지역의 건설 수주 등에 수쿠크 방식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등 매우 현실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경제적인 측면만 살펴본 것일 뿐, 수쿠크법의 도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리만큼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 때문에 이슬람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세계에서조차 아직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수쿠크 제도를 운용할 만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불리 수쿠크법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논평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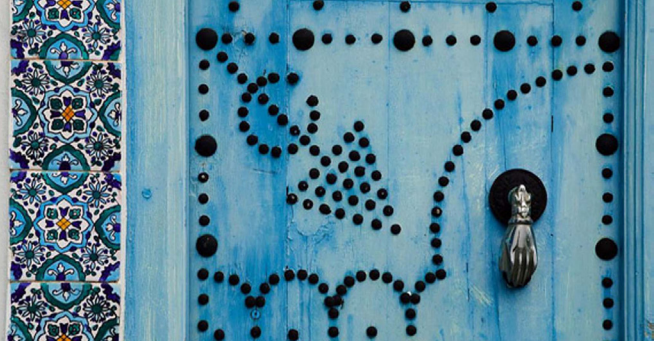
금융의 한국 진출이 어려우니 세금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수쿠크가 아니라도 무슬림 투자자(이슬람권 금융회사 등)들은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기업에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무려 약 3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이슬람 금융에 의해서도 이미 자금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세금 때문에 한국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수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설사 세금이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한국에 진출하게 되어 있다. 다만 세금을 감면해 주면 이슬람계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쿠크 방식에 의한 외자도입의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샤리아 위원회’의 입김이 더 세질 수 있고, 자금조달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자금조달비용이 더 증가할 수는 있다.

반대론자들의 논거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는 합리적인 견해가 있는 반면에 오해 혹은 과도한 우려에 가까운 견해도 있다. 수쿠크법을 도입하면 무슬림에 의한 각종 테러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견해는 수쿠크법의 도입과 테러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오도한 것으로 보이고, 수쿠크법은 무슬림에 유리한 것이므로 오히려 수쿠크법을 도입한 나라에 대해 무슬림들이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상식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인정하기 어렵다. 수쿠크법을 도입하면 ‘샤리아 위원회’가 설치되어 채권 발행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의 상당수가 이슬람 근본주의자이거나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법률보다는 이슬람 율법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법체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법에 근거한 금융이므로 ‘샤리아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설치된 ‘샤리아 위원회’가 그들과의 국제거래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민주국가의 법체계를 흔들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견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슬람 금융은 ‘자카트’라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2.5%를 자선단체에 보내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때 ‘하왈라’(Hawala)라는 송금방식의 특성상 송금 즉시 관련 서류를 파기하므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국제테러조직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음성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슬람 국가,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이 없는 대신에 모든 소득금액의 2.5%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관습화되어 있으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원유수출대금과 같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최대 2.5%의 ‘자카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가 지하드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카트’는 이슬람 국가와의 거래상 보편적인 문제이므로 이것을 수쿠크법 도입의 반대논리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슬람 국가의 원유수출로 인한 수익 중에서도 ‘자카트’가 납부되지만 그런 이유로 국내 원유수입을 반대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 국제테러조직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의 문제는 국제간의 공조, 조세정보교류, 자금세탁방지법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수쿠크법 도입 여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세법상 양도소득, 임대소득을 이자소득과 동일·유사하게 볼 수 있는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무리하게 확장한 것이라는 비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정당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나 내국 자본과 외국자본을 차별하고, 특히, 수쿠크에 대해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중립성 내지는 평등의 원칙/형평성에 반한다는 비판(조세특례제한법은 기존에도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특혜를 인정하고 있고, 이것은 조세정책상 가능하다(은 가능하다. 또한 수쿠크법이 시행되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상하거나 절하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기업의 부당계열사 지원과 같은 부당한 내부거래, 편법적인 상속/증여, 해외비자금 마련, 검은 돈의 유입이나 유출, 그에 따른 각종 탈세가 용이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이러한 문제는 수쿠크법 고유의 문제는 아니고, 보완책 마련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특정 종교의 실물거래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이러한 견해는 이슬람 금융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다).

최근에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을 면제하는 수쿠크법은 토지 불로소득을 더 용인하는 것이며, 수쿠크법을 성경에 비취 보면 가난한 자에게 꾸어 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말고 안식년에는 부채를 탕감해 주라는 성경의 대부법(자본법)을 회피하기 위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이라는 성경의 토지법을 어기는 셈이다. 이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작 올법의 더 중요한 바인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리고,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더 큰 낙타는 삼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세계에서조차 아직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

에 우리나라에는 수쿠크 제도를 운용할 만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불리 수쿠크법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논평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론 및 대응전략

필자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기상조론’이다. 수쿠크법 자체가 법률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그 법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 특히, 부동산 관련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내에 이슬람 금융 관련 전문가 부족, 기독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준비 미비 등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 정부의 수쿠크법안은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반대론자의 합리적인 견해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많다. 경제적인 이유를 앞세워 사회갈등 요소를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도 수쿠크법 도입을 서둘기 보다는 현 상태에서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따를 것인지, 이슬람 금융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시장에 맡겨두고 그 추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면서 수쿠크법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외교라인에서마저 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에서 과연 국내에 이슬람 금융을 잘 아는 전문가가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쿠크법이 만들

이슬람 선교의 핵심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 변화하는 것이지, 공격적으로 개종시키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이슬람 포비아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에도 분명히 악한 세력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들로 인하여 이슬람 전체를 일반화시켜 과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어지면 비판론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샤리아 위원회'의 입김에 따라 계속 끌려 다니게 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외화자금의 유동성은 풍부한 편이므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처럼 시급하게 수쿠크법을 도입할 이유도 없다.

한편,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자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진품이요 명품이라 믿고 있다. 따라서 무슬림들도 그들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세계화에 반대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슬람 국가로 파송되어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제 발로 국내를 찾아온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고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성스럽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은 현재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부여된 동등한 가치이며 무슬림도 포함된다. 중동 현지에서 십 여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던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슬림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성경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고, 이미 낫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기'자를 가르치기가 쉽듯이, 그들에게도 복음의 진리는 통한다고 한다. 이주노동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 NGO 사역자들은 오늘도 많은 국내 거주 무슬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분들의 섬김과 나눔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감동받은 무슬림이 변화되어 본국에 역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슬람 선교의 핵심도 역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 변화하는 것이지, 공격적으로 개종시키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이슬람 포비아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에도 분명히 악한 세력(이슬람 근본주의자 등)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들로 인하여 이슬람 전체를 일반화시켜 과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자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무슬림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기존의 우리 문화와 충돌할거나, 부정적인 이슬람 세력들이 국내에 침투해 들어오거나, 우리 국민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될지 모른다는 온갖 우려와 걱정으로 인해 두려움을 양산시키

고 있지만, 과연 그보다 먼저 기독교의 진리로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즘도 필자는 이슬람 지역에서 살해당하는 기독교인의 소식을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한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똑같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이 피 흘리며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능력으로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무슬림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수쿠크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족(蛇足)을 달자면, 정치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이나 수쿠크법에 대해서도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안의 전후좌우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더불어 비종교인의 시각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집단으로 비치고 있는 종교집단(특히 목회자)이 다른 종교의 세금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부터 전문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목회자들보다 다양한 분야의 그리스도인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합리적으로 각각의 사안에 대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정화 교수의 글(2011년 3호)에 대한 재반론

공정과 상생

글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난 달에 한정화 교수님께서 제 글에 대한 답을 편지형태로 보내오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저의 선배이신 한 교수님께서 제 글에 친절히 답을 해주시고 상세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정과 상생이란 관점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 들에게 의미 있는 주제이고 또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치를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 교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셨지만 여전히 제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주장과 생각에 대해서 한 교수님께서 동의하시지 않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논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전문적인 분야도 언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앞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평등해야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편의를 위해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300인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와 같이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사실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서 경쟁함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논의되는 많은 내용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는 소비자를 둔 경쟁 앞에서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불필요하며 또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 경쟁하는 영역에서 중소기업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성적 메타포의 위험성

한 교수님께서 '전체파이를 키우면서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대기업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한교수님께서 제시한 '삼성한테 빚맞아도 사망',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을 비판한 슈퍼마켓 주인 일가족 6명의 집단자살' 등과 같은 사례를 들으면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을 하면서 대기업의 존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심분 이해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에 대해 분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교수님께서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한다면 인간사회가 아닌 정글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성적인 메타포는 개별적인 사례를 바라볼 때 몇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정한 물이라는 논의는 이같은 비유나 메타포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적인 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같은 시각은 문제를 너무 좁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큰치킨'은 약탈적 가격행위인가

먼저 첫 번째 관점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글의 논리가 아닌 인간사회의 논리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쟁법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간접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이 전혀 없는 상황이란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보완하며 서로 협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교수님께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전혀 경쟁하지 않는 사업영역을 추구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을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한교수님이 지적하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교수님께서 이를 경쟁법 논리를 넘어서면서 대기업이 취해야 할 행위규범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논점이 보다 상세하게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법 논리를 넘어서는 논의의 사례로서는 대기업이 처음부터 대형마트를 하면 안 된다거나 또는 지난해 말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나타난 것처럼 재래시장 인근에 입점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문제제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교수님이 제시한 메타포에 맞추자면 '인간사회의 논리'는 경쟁법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같은 경쟁법을 넘어서는 논리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입법화된 일반적인 사례라기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통큰치킨'의 경우 경쟁법적인 논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경쟁정책 분야에서 논의되는 '약탈적 가격행위(predatory pricing)'입니다. 그러나 약탈적 가격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



가 상당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여야 경쟁을 제한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쟁정책 학계와 또 법원판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치킨의 시장점유율도 채 5%도 안 될 정도입니다. 이는 ‘통큰치킨’이 롯데마트의 프로모션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프로모션은 대형유통업체간의 경쟁을 불러들이는 경쟁촉진적 영업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통큰치킨’외에도 기업들은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을 합니다. 이에 대한 가치판단과 평가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책적 함의를 갖는 경우에는 관련된 전문분야의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고 공부한 경쟁정책 분야의 경제학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통큰치킨’의 경우가 경쟁을 저해하였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한테 빚맞아도 사망’이라는 메타포는 자칫 삼성과 분쟁이 생기는 모든 경우 중소기업은 연약하고 억울하며 삼성은 횡포를 부리는 기업이라는 식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나아가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갈등관계에 있을 때에 잘못된 대기업에 있기 마련이라는 논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즉, 한교수님의 메타포는 ‘중소기업과 갈등하는 대기업은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 ‘통큰치킨’은 롯데마트라는 대기업이 중소 치킨점과 갈등을 불러들이고 있다’ → ‘그러므로 롯데마트는 중소 치킨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라는 일반화로 이어지게 하므로 논리를 비약하는 그림 언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는 첫 번째 논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를 너무 좁게 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대 중소기업간의 갈등만을 볼 때 우리는 소비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최근 폭등하는 물가로 말미암아 소비자들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형마트가 진입하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가격을 낮추어 주면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많은 경험적 연구는 대형마트의 진입으로 소비자는 보다 편하고 질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을 비판한 슈퍼마켓 주인 일가족 6명의 집단자살’은 참으로 슬프고 애절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가 물가인상으로 고통 받는 도시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자유롭지 않아 소득수준이 낮은 도시근로자들이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예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만을 보게되면 경쟁의 효과가 가져다 주는 큰 시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한 교수님께서서는 대기업 과자가 재래식 과자점과 빵집을 대체했고 포항제철과 현대중공업이 중소 대장간이나 조선소를 대체했다는 식의 논리는 연관성이 없는 무리한 논리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든 예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는 변함없는 사실이며 이를 위한 예는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마트가 통큰치킨을 판매한 것에 대해 어떻게 동네 치킨점과 같은 중소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기업이 참기름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재래시장 기름집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익과 무관한 대중소기업간의 갈등 봉합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였지만 정작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으로 재래시장에서 파는 간장계장을 구입하는 재래시장 인근의 소비자 선택까지도 규제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통큰치킨'은 단지 우리 눈에 잘 띄고 보다 드라마틱하게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 심지어는 청와대에서도까지 개입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과 경쟁의 본질입니다. 시장의 범위를 넓게 잡을 때에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처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 중단된 이유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트위터를 통해 이를 문제시하자 롯데마트가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입니다. 저는 이같은 관행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TV와 신문에서 여론 재판을 받고 다음으로 청와대나 정부부처의 유권(?) 코멘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매우 전문적인 경쟁법적인 사안이므로 전문성 있는 독립규제위원회나 사법부에서 논의되고 판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점에서 경쟁을 해쳤으며 소비자의 편익을 손상시켰는지 또는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점검하여야 합니다.

최근 스쿠크법과 관련된 기독교계와 정치권의 논쟁을 보면서 저는 크리스천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에 기독교적인 감성과 종파적인 이해를 초월해서 매우 구체적인 논점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감성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안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서 조업하는 비열한 행위'라는 포괄적이면서도 비과학적인 잣대, 그리고 다소 감정적인 기준으로 비난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연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경쟁을 손상시킬 잠재력이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rinity Western 대학에서의 12년을 회고하며

기독교대학 단상

글 양승훈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교수

필자가 한국 대학을 떠난 것이 1997년 11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 한국 대학들도 많이 변했고, 캐나다에서도 기독교 대학의 최고 책임자가 아닌, 신학대학원의 프로그램 책임자(학과장 정도)라는 중간 책임자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북미주 대학을 깊이 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30여년 간 기독교 고등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국내외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필자는 북미주 대학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한국 교수들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하는 듯 한데 어떻게 생산성은 북미주 대학들이 월등한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살아왔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여러 해 동안 캐나다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피부로 느낀 이곳 대학들의 강점들, 특히 대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의 자세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962년, Trinity Western 대학이 개교했을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아래 사진 우측에 있는 세 개의 하늘 색 지붕 건물 중 맨 왼쪽이 VIEW가 있는 Fosmark Centre임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지난 12년간 TWU(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에 근무하면서 필자의 눈에 가장 인상적으로 비쳤던 점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었다. 서로를 존중하는 첫 번째 모습은 지도자들의 섬기는 태도였다. 필자가 TWU에 근무한 첫 7년은 스나이더(Nel Snider) 박사가 이끌었고, 그 후에는 레이먼드(Jonathan Raymond) 박사가 이끌고 있다. 구세군 출신의 Raymond 총장은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하는데 학자로서 뿐 아니라 대학 행정가로서도 탁월한 분이였다. 그래서 TWU가 속한 EFCC(Evangelical Free Church of Canada) 교단 출신도 아닌데 본교의 총장으로 모셔온 것이다.

레이먼드 총장의 리더십은 조직원들과의 탁월한 소통력이었다. 비서실을 통해 보내오는 통상적이고 사무적인 공문이 아니라 온 조직원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는 총장의 개인 편지가 직접 매주 500여 교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된다. 내용은 신앙으로 이 학교를 이끌고 가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나누어야 할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필자는 매주 보내오는 총장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정말 TWU가 세속의 물결 속에서 곳곳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수고하는 대학 리더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가끔 총장에게 헌신적으로 학교를 섬겨주어서 감사하다는 간단한 답 메일을 보낸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비단 총장만의 모습이 아니다. 본부의 여러 지도자들이나 신대원이나 대학원 원장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응답은 존경의 마음이다. 처음 이곳 대학에 근무하기 시작할 때에 필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학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유난하다는 점이 언뜻 잘 이해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캐나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충실할 뿐 다른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을 존경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지내면 지날수록 저들은 우리들보다 지도자들을 훨씬 더 많이 존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의 존경은 나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섬김, 즉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에 대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존경이었다.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고, 그런 사람들을 서로서로 존경하는 모습은 정말 부러웠다.

지난 12년동안 TWU 캠퍼스에 지내면서 필자는 단 한 번도 지도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들은 지도자들 앞에서 외적으로 굽실거리지는 않지만 존경할만한 사람들에 대해 마음 속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곳에 살다보니 저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을 건물이나 거리 등에 붙이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기독교 대학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아닌가 생각된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가장 드러나는 곳은 교수회의이다. 필자가 이곳 대학에 근무하면서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이곳 교수들의 회의하는 모습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전체 교수회의만도 100회 이상, 소위원회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회의를 했지만 한

이들의 존경은 나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섬김, 즉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에 대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존경이었다.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고, 그런 사람들을 서로 존경하는 모습은 정말 부러웠다.



국에서의 교수회의와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 필자는 한국 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교수회의 중에 얼굴을 붉히거나 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일을 심심찮게 경험했다. 그런데 이곳 교수회의에서는 그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수들끼리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예민한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더 톤이 낮아진다.

기독교세계관 대학원 프로그램은 VIEW와 ACTS가 적절한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계약을 위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결국 한쪽이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게 되면 다른 한쪽은 그 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 협상을 할 때는 그야말로 피 말리는 협상을 여러 차례 한다. 하지만 아무리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이라도, 그리고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해 있을지라도 협상하는 양측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해 이곳에 모여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지금도 필자가 소속된 문헌학사 과정 소위원회에서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메노나이트 신학교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필자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날마다 전화로, 혹은 이 메일로 전략을 짜고 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위원회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마켓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묘안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람을 존중하는 이곳 대학의 분위기는 학교 내외의 기관들이 서로 협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각 부처마다 부처 이기주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필자는 이곳에서 그런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학교를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라고 생각하기보다 한 나라 혹은 지역 사회의 공유자산이라고 하는 정신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학부보다도 다섯 개 교단들이 운영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운영하는 ACTS 신학대학원은 기관들 사이의 협력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CTS에서는 여러 교단들이 모여서 한 신학교를 운영하다보니 당연히 교단이나 신학교 간에 이해가 상충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밀고 밀리면서 조금씩 물러서고 양보하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제들이 만장일치로 마무리 된다. 서로 믿고 존중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합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비단 교내 기관들 사이에서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다. 학교의 사명선언에 위배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이

VIEW가 여러 해 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 밴쿠버에서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열린 자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한다는 정신 때문이었다. 이것 역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 기초한 태도이다.



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누가 제안하더라도 진지하게 검토한다. VIEW가 여러 해 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 밴쿠버에서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들의 열린 자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협력한다는 정신 때문이었다. 이것 역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 기초한 태도이다.

자기 업무에 성실한 공동체

다음으로 인상적인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자기 일에 매우 성실하다는 점이었다. 지도자들은 물론,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정원사들, 교수들이나 행정직원들 모두 자기 일에 성실하다. 업무 시간 중에 딴 전을 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역시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TWU 교수들의 성실한 강의 준비였다. 아무리 타고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는 잘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TWU에서는 끊임없이 프로데이(Professional Development Day)를 갖는다. 이것은 물론 TWU만의 제도는 아니다. 북미주의 모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가 갖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아무리 자신의 해당 분야에서 박사를 받았더라도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또 다른 전공이다. 자기 분야의 전공 지식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그 지식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는 또 다른 전공이기 때문이다. 교수법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교수들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VIEW에서 가르치는 10여명의 캐나다 교수들을 보면서 필자가 정말 놀란 것은 저들의 철저한 강의 준비이다. 이것은 필자가 한국 대학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교수가 강의 시간 전에 미리 강의실에 도착해서 학생들을 기다리는 것이나, 강의 노트를 잘 준비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잘 준비하는 것 등 외형적인 것에 더하여 강의 내용이 정말 돈 주고 사고 싶을 만큼 '영양가'가 짙다. 치밀한 시간 계획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강의 내용과 무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탁월한 강의의 출발은 잘 만들어진 강의계획서인데 VIEW에서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들이 처음 강의할 때 부딪치는 문제는 바로 강의계획서이다. 외래 교수진(Adjunct Faculty)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수들이 처음 강의계획서를 위원회(Syllabus Committee)에 제출하면 '피투성'이 된다. 강의계획서가 영성해서 새빨갈게 고친다는 말이다. 과제의 분량이 3학점 대학원 강의로 적절인지, 교과서가 최근 연구를 반영하는 학문적인 책인지, 읽는 책들이 신학적으로 건전한지, 숙제나 시험이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책을 읽고 단순히 요약, 정리하라는 숙제는 없는지...

이런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TWU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대학 대학평가 기관인 The Globe and Mail and Maclean's로부터 지난 4년 연속 전체 캐나다 100여개 대학들 중 교육의 질(Educational Quality) 부문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치중한다고 해서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TWU는 모든 연구 분야에서 1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분야는 캐나다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실제로 TWU는 캐나다 정부가 최고의 대학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Canada Research Chairs를 세 개나 갖고 있다: (1) Developmental Genetics and Disease; (2) Interpretation,



Religion, and Culture; (3) Dead Sea Scrolls Studies. 많은 교수들이 교육에 목을 매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 은사가 있는 교수들은 그 은사를 따라 학교를,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 업무에 충실한 모습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 행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필자가 한국에서 근무했던 대학은 물론 대부분의 한국 대학의 교수들은 학교 전체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 총장 선거와 같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 그런데 이곳 TWU에서는 학교의 중요한 행사에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참여한다. 9월 초순에 모이는 개강예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정기적으로 모이는 월례 전체 교수회의 등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든 교수들이 참석한다. 특히 4월 졸업식에는 모든 교수들이 학위복을 차려입고 참여한다. 물론 단상에 올라가는 리더들(platform party)은 일부이고 다른 대부분의 교수들은 졸업식장 앞쪽 좌우의 지정된 좌석에 앉는다. 보직 교수들 외에는 거의 졸업식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 대학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

매년 8월 하순에 2박 3일로 진행되는 교수 수련회도 모든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례행사다. 국경 너머 미국에 있는 좋은 수양관을 빌려서 진행되는 교수 수련회에서는 예배, 친목, 신입교수 소개, 중요한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적을 발표한 교수들의 연구 소개 등 다양한 순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이념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워크숍이었다. 워크숍은 근래에 발표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나 이념, 학문과 신앙 등에 관한 중요한 서적을 한 권 선정하여 장별로 그룹을 만들어 토의하고 이를 전체 토의시간에 발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물론 이 때 사용하는 책은 학교에서 미리 몇 달 전에 일괄 구입하여 전 교수들에게 배포하고 읽어올 것을 요구한다.

학교의 중요한 학술행사에도 교수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 비록 자기 분야의 학자가 아니라도 중요한 학자들이 방문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일전에 영국에서 라이트(N. T. Wright)라는 신학자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필자는 강연장엘 갔다가 깜짝 놀랐다. 거의 모든 교수들과 많은 대학원생들, 심지어 상당수의 직원들까지 참석한 것이 아닌가. 꽤 큰 강당에 앉을 좌석을 찾지 못해서 시간 전에 간 필자도 한동안 헤맸다. 두어 주 전에 참석하겠다고 예약했는데...

자기 업무에 대한 성실함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섬김에서도 나타난다. 이곳 교직원들은 대학의 일차적인 서비스 대상인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매우 민감하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지

금까지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지만) 일단 학교 지도자나 교직원들은 이들의 요구를 경청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엄청나게 비싸다. 이 비싼 서비스 패키지를 팔려면 그만큼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경쟁 대학들에 비해 자기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격 대비 서비스의 질이 탁월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수들은 이런 치열한 서비스 경쟁의 한 가운데 바로 자신들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모든 서비스 업종이 그러하듯이 서비스의 질은 결국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보험 상품이나 경영 컨설팅 등에 비해 기독교 대학에서는 지식과 더불어 인격과 영성이 전달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업종과는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기독교 대학도 역시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비스 대상은 일차적으로 학생이고, 다음으로는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학부모들, 그리고 동문들, 지역 사회, 나아가 나라와 열방이다.

이들은 섬기는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외부인들에게 강의를 개방한다. 물론 사전에 교수의 양해를 구해야 하고, 교수들은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허용한다.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으니 와서 보고 자녀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학교를 추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비단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중무휴로 다양한 공개강좌나 유료강좌들을 개발하여 지역 교회들을 초청한다. 대학에서 훌륭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을 모시고 강연이나 세미나를 한다. 물론 모든 행사가 무료인 것은 아니지만 유료라고 해도 이것은 지역 교회나 사회를 위한 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기독교 대학

지금까지 기독교 대학으로서 TWU에서 볼 수 있었던 몇 가지 특성을 소개했다. 물론 자세히 기술하자면 훨씬 더 많은 특성들이 있을 것이지만 위에서는 필자가 TWU에서 근무하면서 피부로 느낀 가장 인상적인 특징들만을 소개하였다.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좋은 점들만을 소개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대학의 외적인 좋은 점들만을 소개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기독교 대학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TWU도 완전하지 않다.

대부분의 소규모 기독교 대학들이 그러하듯 TWU도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총장을 비롯한 학교 지도자들은 정부나 여러 재단으로부터, 혹은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인간힘을 쓰면서, 내핍 경영을 한다. 아무리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도 돈이 없으면 좋은 교수를 스카우트 할 수도,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교수나 교육환경,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도 않는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소규모 대학들이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키울 것인가? 이것은 모든 기독교 대학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이곳 대학에서도 때로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사고를 치기도 한다. 지도자들도, 교직원들도, 학생들도,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다. 이곳 대학에도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학교에서는 재빨리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동안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당사자들은 이에 승복한다. 위원회에서 만든 연구 결과들은 차근차근 학교 내규집에 포함시켜서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다.

타락한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자유는 없으며, 타락한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온전하지도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 대학에서는 더 나은 기독교 대학을 만들기 위해 총장으로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나은 학문과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곳.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대학의 모습이 아닐까.

차별화된 교육,

기독교적 고전교육

글 안정진 마산세일교회 부목사

한국 사회는 자녀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말 그대로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기독교 교육은 하나의 '대안'(a reaction)이 아니라, 유일한 '안'(the action)이다. 공립학교가 가진 문제들-예를 들어, 교내폭력과 집단따돌림, 약물과 성범죄, 성적순으로 등급이 매겨진 학교생활, 무신론적 교과과정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기독교 교육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나열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병의 증상일 뿐이지, 질병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은 질병의 근원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전제'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단지 교육방법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세계관의 갈등을 이해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고, 헌신하는 삶에 관한 것이다. 고전교육은 학교 뿐 아니라 홈스쿨링을 위해서도 유용한 내용과 도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분명 내용 있는 '안'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미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전교육 회복운동이 일어났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이해는 기독교적 고전교육의 실천과 적용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고전교육의 재발견

미국 역사에서 공교육은 세 가지 교육목표를 추구해왔다: ‘리더십, 이민자 교육, 기술 교육.’ 1869 대 이전에는 주로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 미국의 건국을 주도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잘 다스리고, 잘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에 모든 힘을 쏟았다. 1860년대부터 1940년 초까지는 주로 ‘이민자 교육’에 중점을 두고 밀려드는 이민자들이 영어로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3R’s) 능력을 배양하고, 미국화(Americanizing)시키는데 집중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는 ‘기술교육(technology education)에 초점을 두고 ‘좋은 직업과 평준화를 위해 훈련’시켜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 사회 안에서 지식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교육이 어디로 편중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미국의 기독교적 고전교육 운동은 낙관적 인본주의적 교육에 저항한 기독교 신앙운동의 결과였다. 또한 지금까지 파편화 되어온 세 가지 교육목표를 통합, 실현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데이빗 히스(David V. Hicks)와 몰터머 애들러(Mortimer J. Adler)의 주도아래 고전교육 회복운동이 전개되었지만, 그것은 고대 르네상스의 고전 인본주의와 중세의 스콜라주의적 고전교육이었지 전혀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아니었다. 이런 인본주의적 고전교육의 회복운동이 공교육 가운데 싹틀 바로 그 시기에, 한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고전교육이 기독교적 조명아래 재발견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명의 인물에 주목해야 하는데, 더글라스 윌슨(D. Wilson)과 도로시 세이어즈(D. L. Sayers, 1893-1957)이다.

단테의 번역가로 유명한 세이어즈는 1947년에 ‘잃어버린 배움의 도구’(The Lost Tools of Learning)라는 에세이를 통해 영국사회 안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학교가 실패했음을 통감하며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중세의 교육방법인 트리비움(Trivium, 3학)을 숙달하는 방법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들의 사회, 지식의 자유가 보존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육이 그 참된 목표를 잃어가기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시점이 바로 중세 말기이다. 오늘 날 교육의 문제점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은 잘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학생들은 다른 것은 다 배워도 ‘배움의 기술’(3학)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녀에게 큰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 에세이는 이후 미국에서 고전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촉진제가 되었다.

윌슨은 개혁파교회(CREC)의 목사로서 해군으로 복무하던 시절 세이어즈의 에세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딸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전교육 원리를 신봉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세워 그 첫 번째 학급에 자신의 그 딸을 두었다. 이 학교가 아이다호주 모스크오(Moscow, Idaho)에 위치한 로고스스쿨(Logos School)이다. 개혁파 교회를 배경으로 한 이 학교는 1981년 9월에 한 지역교회의 지하실을 빌려 18명의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과 더불어 개교하였고, 부모들의 큰 호응 속에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윌슨은 학교를 운영한 십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Recovering The Lost Tools of Learning: An Approach to Distinctively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을 1991년에 출판하였다. 이 책은 미국 내에 그동안 잠들어 있던 복음적인 교회와 신자들을 일깨우는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윌슨의 학교와 그의 저서에 영향을 받아 ‘고전적, 그리스도 중심적 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이란 모토를 건 수많은 학교들이 현재까지 세워지게

되었고, 이 학교들의 연합이 미국기독교고전교육연합(ACCS)으로 발전하였다. ACCS는 1994년 7개의 협약학교로 시작하여,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8개국에 걸쳐 6개의 고전문헌대학과 약 300개의 회원학교 및 출판사를 두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홈스쿨연합체가 가맹되어 있다. 천년 이상의 고전교육의 전통에 비해, 기독교적 고전교육 운동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차별화된 기독교 교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고전교육의 철학적 전제들

‘고전’ 혹은 ‘고전교육’은 다소 생소하고 새로운 것이 분명하다. 인터넷 상에서 고전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음악과 리더십에서부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고전이라는 수식어를 단 수 많은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고전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분야와 영역을 장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인 교육의 영역에서 고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무엇일까? 페린이 “고전교육이란 권위 있고, 전통적이며, 영속적인 형식의 교육으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시작했고 역사를 거쳐 발전을 거듭했으며 21세기에 와서 갱신, 복원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미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전교육 회복운동이 일어났었다. 이미 회복된 고전교육의 철학적 전제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큰 맥락에서 기독교적 고전교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미와 서양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와 접근의 고전교육이 이미 존재 해 왔다. 고전교육 방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고, 역사를 거치는 동안 복원, 발전해 왔으며, 결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교육모델이다. 비록 방법론에서 비슷한 점이 많지만 시대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전교육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 고전교육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크게 세 가지 색의 철학적 기초를 만나게 된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이 삼인삼색의 철학적 기초 위에 지금까지 다양한 고전교육의 건축물들이 세워져 왔다. 현대의 고전교육 회복사례를 통해 나타난 철학적 전제를 간단히 살펴보자.

도덕적 고전교육

가장 먼저 살펴볼 회복된 고전교육의 형태는 데이빗 힉스의 것이다. 힉스는 플라톤에게서 깊은 영감을 받아 도덕적 탁월성을 지닌 이상적 인간을 교육을 통해 이루려 하였다. 이러한 고전교육의 아이디어는 그의 책, *Norms and Nobility*(1981)에 잘 나타나 있다. 최근에 한국어로도 번역된 그의 책, 『새로 읽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역시 이러한 사상을 잘 보여준다. 그는 도덕적 인간을 위해 인간의 잠재력을 계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인본주의적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것은 르네상스의 고전적 인본주의에 회복이다. 이런 이유에서, 힉스의 고전교육을 ‘도덕적 고전교육’라 부른다.

민주주의적 고전교육

다음은, 애들러에 의해 주창된 ‘민주주의적 고전교육’이다. 그는 유명한 ‘파이데이아 제안’(paideia proposal)을 통해 미국의 하향 평준화된 공교육을 고전적 접근, 특히 ‘고전’(the Great Books)과의 대화를 통해 개혁하려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세속적 인본주의 교육가인 호레이스 만(Horace Mann)과 존 듀이(John Dewey)의 사상적 계승자였고, 그들의 핵심 신앙은 ‘민주주의’(democracy)였다—사실 미국의 공교육은 ‘민주주의’라는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는 결코 이해 할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용

어는 ‘민중 혹은 사람에 의한 통치’(the rule of demos)를 의미한다. 즉 ‘사람들’(demos)이 모든 것-전통, 통치자, 관습,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인간 내부에 새로운 신앙을 두려는 시대정신(zeitgeist)의 표현이다. 민주주의 질서에 사는 우리들은 민주주의가 마냥 좋은 것이라 생각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불행하게도, 어떤 보수적인 단체의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동의어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신념이 그 시작에서부터 종교적인 아이디어임을 깊이 인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들의 주장처럼, 교육에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이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거나, 인간 안에 교육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주의 교육은 철저히 인간 내부에 소망을 두고, 교육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구원을 주려는 허황된 비전을 제공한다. 그들에게 교육은 단지 ‘공평’의 문제이지, 더 이상 ‘은혜와 감사’의 문제가 아니다-애들러는 이성을 지식의 중요한 근원 및 검증 수단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론을 교육에 적용하였다; 힉스의 교육목표가 도덕적 인간이었던지, 애들러의 교육목표는 지성을 갖춘 인간이었다.

기독교적 고전교육

우리의 관심사인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방법론에 있어서 위의 두 가지 고전교육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철학적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전제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그분의 주권이다. 힉스가 플라톤에 기초한 르네상스 정신의 고전적 인본주의로 돌아가려 했다면, 윌슨은 어거스틴(Augustine)의 사상을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며 ‘신본주의’(Deocracy)로 돌아가려 했다. 애들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위에 이성과 합리를 내세우며 중세의 스콜라주의로 돌아가려 했다면, 윌슨은 역사적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 했다. 고전교육의 ‘방법론적 목표’에서도 힉스와 애들러는 윌슨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고전교육의 방법론은 트리비움(trivium, 3학)이다. 트리비움에 관해선 다음 호에 살펴 보겠지만, 이것은 ‘문법’에서 ‘논리’로, ‘논리’에서 다시 ‘수사’로 발전해 간다. 즉 수사학이 목표이다. 하지만 힉스와 애들러는 수사학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논리학에 의존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각각 도덕성과 성취를 지향하는 ‘도덕적 인간’(homo moralis)과 지성과 논리를 지향하는 ‘사고하는 인간’(homo sapiens)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윌슨과 ACCS는 ‘예배하는 인간’(homo adorans)을 지향하는데, 이것은 고전교육의 적용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좀 복잡하게 보이는 이상의 전제들의 요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울은 고대 문화와 학문의 교육을 ‘무지’로 정의한다. 이 ‘무지’는 소크라테스의 신념과 같이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30).” 회개를 뜻하는 헬라이어 메타노이아(metanoia)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혹은 사과합니다”는 의미가 아니다. 삶의 총체적인 변화, 죄와 불경건한 삶으로부터 믿음과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고대로부터 시작된 문화와 학문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며, 믿음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관한 것이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히 바치는 예배

글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대표

거룩한 주님께

Capo=3rd J. S. B. Monsell, 1863 「...거룩한 웃음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MONSELL:12.10.12.10.
조급 빠르게 ♩=104 GM7 C G C G W. F. Sherwin, 1887
(시 29:2)

1.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2.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3. 주 앞에서 설 때에 두려워 아라도
4.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주께 찬양을 올리시네
주께 찬양을 올리시네

금말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보내준 밤에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어둠과 밤에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내 감동과 찬양을 내게 바칠 귀한 예물네
아멘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찬양과 경배



나는 얼마 전 경주에서 열렸던 전국장로수련회 개회예배 때 찬송을 인도하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예배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요사이 대다수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국에서 사천여명의 장로들이 모인 집회의 개회 오프닝에 제각기 편한 차림의 복장으로 마이크를 잡은 그들은 흔히 TV의 오락프로에서나 볼 수 있는 단정치 못한 연예인의 모습이었다. 단추를 풀어헤친 셔츠에 헐렁한 조끼를 열어 제치질 않으나, 소위 도리우치로 불리는 납작모자를 쓰고 있질 않나, 운동화를 접어신고 다리털이 승승 내보이는 반바지 차림에 건들거리며 마구잡이식으로 건반을 두드리질 않나...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들이 정장을 하고 경건히 앉아있는 앞에서 말이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어른들 앞에서라도 그런 복장과 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바람직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차림부터 경건해야하지 않겠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지만 ‘하나님 앞’(Coram Deo)이란 생각을 망각하곤 한다.

며칠 뒤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2010 장로교의 날’ 설교를 맡은 이종윤 목사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단이나 타 종교의 발흥이 아니라 세속화라고 지적하며 예배가 노래방 수준으로 타락하고 교회문화가 세속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개탄하였다. 예배의 위기를 맞은 이 때 우리 장로들은 올바른 예배철학을 가지고 개 교회에서 예배를 지켜 나가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다윗도 시편 29편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으로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국교회 목설(J.S.B.Monsell, 1811-1875)목사가 이 찬송시를 썼다. 원래 1월 6일에 지키는 주현절(Epiphany)용 찬송으로 지어 찬송집(Parish Hymnal, 1873)에 발표하였다. 동방박사들이 아기예수님께 찾아와 예물을 드린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에 우리도 그와 같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자는 뜻에서 지은 찬송이다. 미국 작곡가인 셔윈(W.F.Sherwin, 1826-1888)이 작곡한 작사자 이름인 MONSELL이란 이름의 이 멜로디는 1884년에 출간된 미국찬송가(Laudes Domini)에 처음 수록되었다.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삼가서,” “떨면서 바치는” 같은 단어가 마음에 닿는다. 특히 9째 마디 “금 같은 순종”과 “항기론 겸손”에선 ‘미레도 솔솔’ 순차진행으로 하행하다 ‘순종’과 ‘겸손’에서 똑 떨어지는 것이 가사의 어화(語畵, word painting)를 잘 나타내고, 5째 마디에서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의 멜로디가 ‘도시도 레도레 미레미파’하며 순차진행으로 상승한다든지, 13마디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에서도 ‘라라시도도레미’ 상승하는 것이 주님께신 보좌 앞으로 한발 한발 다가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모범적인 예배찬송이다.

MOVIE REVIEW

A person is seen from behind, climbing a narrow, vertical crevice between two large, reddish-brown rock formations. The person is silhouetted against a bright, glowing light source at the top of the crevice, creating a dramatic, high-contrast scene. The rock surfaces are textured and show signs of weathering.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dominated by warm, earthy tones of red, orange, and brown, with a bright blue sky visible at the top.

JAMES FRANCO
127

대니 보일 감독의 '127시간(127 Hours)'

진정 살기 위해 해야 할 일

글 강진구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교수, 영화평론가

죽음 앞에 지루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슬럼독 밀리어네어〉(Slumdog Millionaire, 2008)를 만든 대니 보일(Danny Boyle) 감독이 이번에는 직접 각본을 쓰고 제작까지 참여한 〈127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인간의 투쟁을 그리는데 남다른 재주를 가진 대니 보일 감독이 이번에는 계곡의 비좁은 틈에 고립된 한 젊은이의 고독한 사투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산악 트래킹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아론(제임스 프랑코)은 어머니의 안부전화도 무시하고 직장 동료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여느 주말처럼 유타주의 블루 존 캐년으로 떠난다. 영화는 그가 이 계곡에서 트래킹을 하는 일이 얼마나 익숙하고 이를 즐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의 사전 장치를 해놓았다. 하나는 캠코더를 들고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찍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계곡에서 길을 잃은 두 명의 여성들에게 자신 만이 아는 지하호수로 안내하여 함께 다이빙을 함께하는 일이다. 그는 캠코더로 산악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의 표정을 담고, 지하호수에서 수영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찍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것은 익스트림스포츠 매니아들이 익히 느끼는 것처럼 일종의 자만심이 가져오는 위협으로 치닫는다. 즉 남들이 알지 못하고 쉽게 할 수 없는 극한의 체험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쾌락의 상존이 유별나지만 쾌락은 사라진 채 고통만이 남게 되는 치명적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대니 보일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이다. 비좁은 계곡의 갈라진 틈 사이에 갇혀있는데다 오른팔은 떨어진 돌덩이에 눌러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어떻게 구성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할 텐데 대니 보일 감독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유지시키며 관객의 시선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사고로 인해 죽음 앞에 선 인간을 바라보는 관객의 심리를 잘 읽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악당이나 정부의 음모로부터 도망치다가 위험에 처한 장면은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기 어렵지만 등산 갔다가 발을 헛딛어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관객은 영화의 주인공이 처한 생명의 위협에 자신의 마음을 쉽게 전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밀한 부분을 크게 묘사하는 감독의 마이크로 연출기법이 관객의 흥미를 자아낸 점이다. 살기 위해 500미터 물을 아껴 마시는 일이나 목 위로 기어오르는 개미의 모습 등은 평소에는 하잘 것 없는 장면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작은 변화와 행동 하나 하나는 클로즈업되어 주인공의 생존감각에 의미를 갖게 만든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주인공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관객으로서는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이다.





절단의 미학

이 영화의 백미는 죽음의 순간에 인간이 경험하는 생존의 본능이며,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치를 제시한 점이다.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캠코더에 수록된 영상들을 보는 일들은 죽음을 앞둔 인간에게 과거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준다. 사고 전에 만난 여성들의 모습을 캠코더로 보면서 자위를 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에는 죽음만큼이나 강한 성적 욕망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주인공이 암석 틈 사이에 갇힌 몸을 빼기 위해 오른 팔을 절단하는 모습은 이 영화가 제공하는 생존의 철학을 보여준다. 팔 역시 내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몸이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자 목표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몸의 일부를 잘라낼 수 밖에 없다. 썩어 들어가는 팔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살수 없을 때 그것을 잘라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통해 고통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킨다.

이것은 전체를 위해서는 부분을 희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작은 것이 큰 것보다 가치 없다고 보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이 영화가 말하는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연연한다면 생명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전체를 위협하는 잘못된 부분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를 향한 은유

개봉 영화가 빛을 발하려면 때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 충무로 영화계의 오래된 정설이다. 인간미를 다룬 소품 수준의 영화라면 화려한 볼거리를 가진 블록버스터급 대형 영화가 개봉되는 시기를 피해야하고, 사회정치적인 이해가 등장하는 영화라면 시류를 잘 타야한다고 영화제작자들은 믿고 있다. 실제로 현빈이 주연한 <만추>가 대중적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TV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높은 시청률이라는 시류를 잘 탔기 때문이었다. 현빈이라는 주인공 한 사람이 지니는 상품적 가치가 영화 전체보다 컸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영화의 개봉시점이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흥행과 연관되어 해석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개봉시점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나 분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새로운 해석을 낳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127시간>이 지닌 절단의 미학은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생존을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한다.

'월간 조선'이 2011년 2월호 특집기사로 '소망교회 폭력사태'를 다뤘다. 한기총은 금권선거 논란에 휩쓸린 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는 바로 권력과 돈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교회가 대외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잡아야할 중대 과제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행한 '2010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



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응답자의 17.6%에 불과한 반면,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33.8%였으며 불신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48.8%로 조사됐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불신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33.5%로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응답 47.4% 보다 적었다. 그런데 최근 통계는 교회를 불신한다는 사람의 응답이 절반에 이를 만큼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년 여 사이에 벌어진 교회의 각종 비리와 추문의 결과들이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은 이유를 살펴보면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15.6%), 교인들의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14.9%), 타 종교에 대해 편파적이어서(7.7%), 교회의 전도 유치 활동이 심해서(6.6%), 목회자와 교인이 믿음과 신뢰를 못 줘서(6.3%), 돈에 집착해 이익만 챙기기 때문(5.5%) 외에 불투명한 재정 사용, 그리고 교회의 대형화를 지적했다.

이러한 진단은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는 전도와 교회성장을 가로 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과연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얼마나 먹혀들어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특하면 교회를 걸고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한팔이 없는 가운데서 결혼하고 여전히 트래킹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절단의 창조적 가치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29-30)

〈127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곧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 무엇을 절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원으로 초대받고 있음을 느낀다. 행복하고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절단할 용기가 있는지를 영화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대구 경북지역의 문화사역 격월간지인 'NewLook' 2011년 3/4월호에 실린 글을 수정 편집한 것입니다



진화론을 탐구하다 :

생명의 진화에 대한 8가지 질문

글 이승엽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지적설계연구회 회장



서울: 21C북스, 2010

현재 생명의 기원에 관한 생물학의 중심 이론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자연선택에 의해서 점진적인 진화가 발생하였다는 신다윈주의 이론이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은 주류 진화론을 증거에 기반한 명백한 과학적 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가 자연선택에 의한 점진적인 진화로 출현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과학자들이 많으며 진화론자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일부 진화론자들은 하나의 생명나무에 의한 진화 모델보다는 과수원과 같이 서로 다른 여러 생명나무 모델이 과학적 증거와 더 잘 일치한다고 본다. 또한 타계한 스티븐 제이 굴드 교수를 대표로 한 화석을 연구하는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화석 증거가 생명의 점진적인 진화보다는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 모델과 더 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진화론 관련 많은 대중 서적들이 출판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일반 독자들을 겨냥하여 진화론을 생명의 기원에 대한 유일한 과학 이론으로 설명함으로써 깊이 있는 진화론 논쟁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서적들은 진화론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만을 강조한다. 이 같이 한 쪽 관점만을 다루는 책들을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관해 ‘증거에 기반한 토론’을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왔다. 진화론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대중적인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2008년에 출간한 원제 “*Explore Evolution*”이란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진화론에 대한 학술적인 토론을 이끌고 있는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디렉터인 스티븐 마이어 박사와 아이오와 대학의 생물학교수인 스콧 미니크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저자가 진화론을 더 깊이 탐구하며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생명의 진화에 대한 8가지 이슈에 대해서 현재 주류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이를 비판하는 다른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찬반 형태로 토론하도록 했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찬반 토론 형식으로 출간되는 최초의 진화론 서적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독자들이 가장 놀라게 되는 사실은 자연선택에 의한 점진적인 생명의 변화를 말하는 현재 주류 신다윈주의 진화론에 대해 진화론자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일반 대중들이 거의 접해보지 않은 내용들이다. 이 책은 생명의 진화에 관한 8가지 이슈 중

“이 책은 생명의 진화에 대한 진화론자 내부의 논쟁을 대중들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가지 ① 화석 천이 ② 해부학적 상동성 ③ 분자적 상동성 ④ 발생학 ⑤ 생물지리학 ⑥ 자연선택 ⑦ 자연선택과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현재 주류 진화론자들의 입장과 이를 비판하는 다른 진화론자들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다만 8번째 이슈인 ‘분자기계’를 다루는 장에서는 최근 생명의 복잡성 구조에 대한 지적설계론 과학자들과 일부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류 진화론자들의 학술적인 비판을 다음으로써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찬반 토론 후에 각 장 후반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논쟁에 대한 종합적 견해를 함께 실었고 관련된 모든 저명 학술지의 세부적인 의견들을 추가하여 학술적인 증거에 기반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물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생물학 연구자들도 토론의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진화론에 대해 배경과 입장이 서로 다른 두 명의 국내 과학자가 여러 토의를 거쳐 충실하게 번역하고 다양한 컬러 화보를 덧붙여 이해도를 높였다.

“만약 수많은 연속적이고 작은 변형을 통해서 생길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깨어질 것이다.”

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으로 여겨지는 『종의 기원』에 다윈의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놀라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진화론이 생명 기원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다윈의 언급처럼 자연선택의 진화론으로 생길 수 없는 복잡성의 구조를 연구하며 검증하는 것이 진정한 다윈주의자의 길 아닐까? 불행히도 현재의 생물학에서는 그 어떤 증거를 갖고도 진화론을 학술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연주의 관점에 근거한 진화론을 비자연주의적 관점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주류 생물학계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진화론을 깊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진화론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져 진화론이 유일한 생물학 이론으로 모든 이가 받아들이는 때가 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 이론이 과학계의 검증 과정을 통과하여 진화론과 공식적인 토론을 할 때가 오든지, 둘 중에 어느 쪽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런 목표를 이루는 데 이 책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세계관 논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생명 기원에 대해서 핵심 쟁점과 논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이 책을 기독 지성인들이 꼭 읽어보길 추천한다.

국내의 대형출판사중 하나인 21세기북스에서 출간하여 주요 서점 및 모든 인터넷 서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업을 위한 자료는 지적설계연구회 홈페이지 (www.intelligentdesign.or.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5기 선발 및 개강식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5기 선발을 위한 선발전형을 통해 미디어 분야에 비전을 두고있는 총 21명의 헌신된 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개강식은 4월 2일 오후3시 국민일보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신국원 아카데미 소장(총신대 교수)의 예배인도와 이인용 부사장(삼성전자)의 특강, 박광현 극동방송 편성제작부장, 임한창 국민일보 종교국장도 참석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5기 수강생들을 위한 격려사를 해주었습니다.



제1기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과정



지난 3월 21일부터 이촌동 세미나실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과정을 유경상 CTC 대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에게 기독교세계관을 교육하고 코칭하기 위한 부모, 교사, 사역자들이 참가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4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 청소년 교재개발 연구모임



원서 UTT 교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세계관 관련 설문지,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과목에 나타난 세계관 등을 연구하고 발표, 토론하였던 청소년 기독교세계관 교재개발 연구 모임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책임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경제/경영분과, 교육분과 4월 세미나 안내



경제/경영분과는 2011년 4월 22일(금) 오후 5시에 이촌동 세계관동역회 세미나실에서 4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이슬람 금융(스쿠크)에 대하여'이며 발제자는 김승욱(중앙대), 김태황(명지대) 교수입니다.

교육분과는 2011년 4월 23일(토) 오전 10시에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4월 세미나를 갖습니다. 주제는 '학습과 지능, 동기에 대한 이해'이며 발제자는 이은실(한동대) 교수입니다.

QR코드로 스마트폰에서 월드뷰 보기



QR코드는?

Quick Response 의 약자로 일종의 바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의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갖다 대면 바로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QR 코드를 사용하려면?

QR코드를 인식하고 실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QR코드 실행프로그램 QR Droid, QROO QROO, 네이버QR, 다음QR 등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하며 안드로이드에서는 마켓, 애플은 앱스토어에 접속해서 앱(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QR 코드 프로그램 설치의 예

앱스토어나 마켓이나 비슷하지만, 안드로이드의 마켓에서 “QR Droid” 를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마켓”아이콘 (오른쪽 그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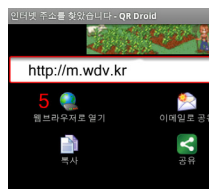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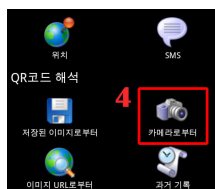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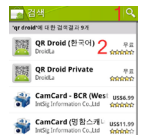
1. 마켓에 들어가서 위쪽 오른쪽에 보면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QR Droid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화면에서 QR Droid 프로그램을 클릭해주세요.

3. QR Droid 화면에서 ‘설치 무료’ 라는 버튼을 누르고, ‘권한 확인’을 한번 더 누르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그대로 1분정도 두면 설치가 완료되고, 메인메뉴로 돌아가면, QR Droid 아이콘이 새롭게 생겨 있습니다. 이것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4. QR Droid를 실행시키고, ‘카메라로부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네모난 화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QR Code가 보일수 있도록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프로그램이 인터넷 주소를 변환해서 보여줍니다.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브라우저로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으로 월드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비 및 후원 (2011.2월)

개인회비_단위(원)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창현, 김혜숙, 박경준, 윤경선, 조성진, 한인관, 황정현 4천 노승욱, 유경상, 최원길 5천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길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상욱, 김은하, 김정명, 김정심, 김정준, 김중규, 김철수, 김태운, 김현수, 김혜창, 남상수, 남서희, 마민호,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배가빈, 배기선, 배도환, 배무런, 범경철, 소중화, 손영일, 송시섭, 신기혁, 신현주, 심정하, 안용준, 양숙, 양영태, 유창은,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명진, 이민화,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인수, 이인주, 이한기, 이향숙, 임선제, 임재영, 임춘택, 임형준, 장남기, 장헌일, 전정진, 전중화, 전충국, 정범재,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창근, 조혜경, 주경식, 최광수, 최용준, 최한빈, 허재일, 홍성민, 홍승기, 황나란, 황의서 1만 강미라, 강은정, 김경희, 김광순, 김성상, 김세령, 김세완, 김세중, 김영애, 김영완, 김영화, 김은혜, 김정일, 김정호, 김홍섭, 김효숙, 박광국, 박기연, 박대원, 박두한, 박시운, 박창우, 서성록, 송정은, 신효영, 안석, 양성만, 양성일, 오혜정, 유건호, 유영준, 유지황, 유해무, 유화원, 이규현, 이길형, 이명수, 이명현, 이상희, 이성수, 이시영, 이신영, 이윤석, 이윤재, 이정길, 이종국, 임동민, 임일택, 전성구, 전태수, 정현주, 조용현, 조현철, 주성철, 한혜실, 허찬영 1만5천 김선화, 최동원 2만 강대훈, 권민규, 김남국, 김옥태, 김용식, 노용환, 배은경, 변우진, 우시정, 이대환, 이명희, 이현정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김종호, 김종락,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우병훈, 윤석찬,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장수영, 정동섭, 정은애, 조무성, 추태화, 황정진 4만 박한 5만 김성락, 김시호, 송인규, 신국원,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이윤희 10만 김승태,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윤완철, 전광식 11만 임동민 15만 양승훈 30만 오형국 100만 김승욱 합계 4,744,000원

후원기관_단위(원)

1만 빛과소금 교회 3만 두레교회 5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10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산정현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영월주님의교회, 은혜로교회, 자운교회, 참빛교회, 한국성결교, 호산나교회 15만 중앙대학안성교회, 20만 국군중앙교회, 수영로교회 30만원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새로운교회 합계: 3,690,000원

*1월 회비내역 일부가 전산오류로 인하여 3월 호에서 누락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1만5천 김선화 2만 강대훈, 김옥태, 김용식, 노용환, 배은경, 우시정, 이대환, 이명희 3만 김동원, 김상범, 박상진, 우병훈, 이대희, 이은실, 정동섭, 추태화, 황정진 5만 조성대, 최현일, 한윤식, 10만 김원수, 박상은, 전광식

후원하시고도 명단에 이름이 없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에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일정의 회비 납부자)에게 드리는 혜택

1.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 <Worldview>와 학술지<신앙과 학문>또는 <통합연구>를 보내 드립니다.
2. 석사 이상 회원분들은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원으로 자동등록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각종 학회 및 세미나 발표논문과 칼럼,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4.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5. 연1회 CUP 출판사의 신간을 받아보실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6. 학문 연구에 뜻이 있으신분은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7. 회비(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 1 구좌 : 5,000원

일반회원 : 2구좌(1만원) 이상

학생회원 : 1구좌(5천원) 이상

임원 : 6구좌 (3만원) 이상

이사 : 20구좌(10만원) 이상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SAMSUNG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Tab하게
될 것이다!



슈퍼미디어 GALAXY Tab

읽고 보고 듣고 찾고 통화한다 Life is Tab! Tab! Tab!

- e-Reading 8만권의 도서, 8종의 신문/잡지, 100여종의 만화, 연구보고서, 전문지를 Tab 하다
- e-Learning 전자사전, 유명강사의 동영상 강의, 교과서를 Tab 하다
- Multimedia 카메라, 지상파 DMB, VOD서비스, 3D게임을 Tab 하다
- Utility 아이나비 3D 내비게이션, 디지털 액자, 여행가이드북을 Tab 하다
- Smart work 탭만의 음성/영상통화, 문서 수정, PC처럼 인터넷을 Tab 하다

QR코드로 즐기는,
“컬투와 함께하는 탭택시”

www.tabtaxi.com에서 18개의 탭택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Samsung
Anycall



춘계학술대회 개최 및 발표논문 모집

기독교학문 연구 현황과 발전방향

2011 5. 21(토) 10:00-19:00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홀

성경적 세계관을 학문에 적용한 결과와 고민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
2011년 기학연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행시간계획	발표 논문 모집 요강
<p>09:30 - 10:00 대학원생 등록</p> <p>10:00 - 12:00 대학원생 논문 발표</p> <p>12:00 - 13:00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등록</p> <p>13:10 - 13:30 개회식 및 청년기독교학술발표논문상 수여식</p> <p>13:30 - 15:00 주제 발표 김홍섭 교수(인천대) 장수영 교수(포항공대) 정희영 교수(충신대)</p> <p>15:00 - 18:00 세션별(5개 분과) 발표</p> <p>18:00 - 19:00 만찬</p>	<p>분야 기독교세계관, 교육, 경제/경영, 문학/철학, 문화예술, 상담심리, 자연과학 등 주제와 관련 있는 논문을 환영 하나 이에 관한 논문으로 한정하지는 아니함.</p> <p>논문 발표 신청 접수 2011년 4월 23일까지</p> <p>신청 내용 발표자 성명, 소속, 직책, 전공, 논문 제목, 연락처</p> <p>논문 원고 제출 2011. 5. 9(신앙과 학문 편집규정 참조)</p> <p>대학원생 논문 시상은 원고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한함.</p> <p>발표 신청 및 논문 원고 제출처 ① ② 두 곳에 동시 제출 요망</p> <p>① ecothk@mju.ac.kr(김태항 교수/ 학회 총무)</p> <p>② gihakyun@daum.net(기학연 사무국)</p>